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3년도 표어 ⊕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벗(마 25 : 40, 레 19 : 18)

⊕ 행동지침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 발행인: 박노철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 558-1106 팩스: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부활절 메시지

Happy Easter!

하나님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은 그 사랑을 영원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 침마다 새롭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의 죄였고 불순종의 죄였으며 온갖 더럽고 추한 죄였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범 죄한 우리는 그리하여 영원한 사망, 그 지옥에 갈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 큰일을 내시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무런 죄나 허물이 없는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온갖 고통과 조롱을 다 당하셨습니다. 가시 면류관, 채찍에 맞으심, 창에 찔리심,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심, 그리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내리 쬐는 태양 아래, 우리 주님의 생명은 타들어갔고 결국 운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망에 매여계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능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권세에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성경이 예언했 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부활의 사건은 우리의 참 소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 제 그분을 믿는 우리 모두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죽 음도 두렵지 않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과 소망과 부활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소유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 받고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부활의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 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사 박노철

예수, 다시 사셨네!

주일 I, II, III부 예배 : 성찬예식 / 찬양예배 : 부활절 감사찬양, 순결서약식

하나님은 죄로 인해 희망이 없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여금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로 지키며 주님의 삶과 피를 기념하기 위해 I, II, III부 예배 시간에 성찬예식을 거행한다. 우리는 이 성찬을

은 회개와 감사의 기도로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해야 한다.

또한 찬양예배 시간에는 임마누엘 찬양대(대장: 양춘경 장로)가 부활절 감사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2013년 순결서약식이 거행 된다.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한다.

2013년 순결서약식

오리엔테이션 - 오늘 오후 4시 30분 본당 / 순결서약식 - 오늘 찬양예배 시

2013년 순결서약식이 3월 31일(부활절)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열린다. "주를 향해 자기를 깨끗하게"(요일 3:3)라는 주제로 거행되는 순결서약식은 성의 올바른 개념을 정립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레11:44)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고자 함이다. 대상은 13세 이상의 모든 미혼 남녀(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로 결혼 전까지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순결을 지킬 것을 서약한다. 순결서약을 한 젊은이들에게는 항상 서약을 상기할 수 있도록 '순결서약서'와 '순결서약기념품'이 주어진다.

순결서약 신청자는 오늘 오후 4시 30분 본당에서 있을 오리엔테이션에 반드시 참여하기 바란다.

- 중등부 (56명)**
고혁진 공지혜 구예지 권애리 김건하 김도윤 김동건 김민주 김범집 김예진 김은영 김재용 김중구 김주연 김지민 김형원 라성은 마승완 박상준 박석승 박연준 박우현 박재현 박혜민 박혜민 배진우 백세희 백소정 송민경 신서호 엄세진 오원준 오유성 옥준용 우현주 유동연 윤영은 윤지수 윤혜정 이강석 이상민 이승재 이예나 이우진 이정현 이지민 장우혁 정 건 정효정 조석희 조수정 조준희 최민준 허 정 황두를 황준영
- 고등부 (19명)**
고진성 김태현 문광연 박재현 배상은 백인아 송인혁 이상원 이상현 이우주 이은영 임주원 전재민 정동혁 정시현 정아영 정영준 진주호 하동권
- 청년부 (6명)**
문준영 우선영 이다솜 이해령 임이랑 한재희

부활절 칸타타 초대이름

십자가 위 일곱말씀



믿을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신 주님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고 찬양드리는 성도들의 부활절 찬양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임마누엘 찬양대원들이 생업도 뒤로하고 오랫동안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였습니다. 내 죄를 대속해 주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 양손과 양발에 쇠못이 박히시던 그때,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일곱말씀을 하신 그때를 생각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칸타타 '십자가 위 일곱말씀'을 올려 드립니다.

오늘 저녁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를 소원하며 오늘까지 보호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장래에도 서울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양춘경 장로 (임마누엘 찬양대장)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 [82]

(문 81)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은 얘기가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삼상 9장, 10장, 12장) 성경에 이런 모순이 있습니까?

(답)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이 기름부음을 받은 기사는 실제로 하나뿐입니다. 삼상 10:1에 있는 기사 즉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은 습판(9:5) 근처에 있는 라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개인적으로 기름을 부으면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 하셨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기름부음을 받은 사건은 이 사건 외에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상 10:17-24에 의하면 사무엘은 미스바에 백성을 모아놓고 각 지파대로 천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게 하였습니다. 그중에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그중에서도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또 그중에서도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짐보따리를 사이로 숨었습니다. 사울을 찾아 모든 사람 앞에 세우고 사울이 공적으로 외치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하니 백성이 왕의 만세를 불렀다고 했습니다.(24) 여기에는 사울에게 기름 붓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또한 길르앗 아베스에게 사울이 암몬 사람들을 쳐 부수고 개선 장군이 되었을 때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삼상 11:15)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사울이 기름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없습니다. 대관식을 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이것은 미스바에서 이미 행한 기름부음을 받은 것과 함께 왕의 권위와 영광을 재확인하는 예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삼상 12장은 길갈에서 왕의 위치를 다시 확인해 주고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서 새 지도자를 존중히 여기고 순종할 것을 권고하고 그리고 새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순종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14-15) 그리고 25절에서는 강한 어조로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하셨습니다. 이렇게 사사시대는 마감되고 이스라엘 첫번째 왕 사울이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주 계속)

교회 지하주차장 물청소

4월6일(토) 오전9시-12시

우리교회 스테반회(회장 김광룡집사)는 4월 6일(토) 오전9시-12시까지 겨우내 먼지와 염화칼슘등이 쌓인 지하주차장 청소를 하기로 했다.

청소는 4월 6일(토) 오전9시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이 시간 지하 1,2,3 주차장에 주차된 모든 차량은 오전 8시까지 교회 앞마당으로 이동하여 주기를 바라며 모든 성도들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삭선교회(회장:우상태 집사)는 18일 '사랑의 쌀 나눔 본부'에 쌀 100kg을 기증하였다. 이삭 선교회는 하반기에도 이런 봉사를 할 예정이다.

내가 부활한다면

모두의 'Heaven'이니가요



오수민
(중등부 3학년)

“그 곳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풀밭과 맑은 시냇물, 그리고 천국은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비추고 그 어느 때라도 흐려지지 않는 멋진 하늘이 있는 곳일 겁니다. 곳곳마다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고, 그 위에는 예쁜 새들이 둥지를 틀어 살고 있을 것이고, 어디를 가든 펼쳐져 있는 아름다운 길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위대할 정도의 디자인으로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바닷가의 백사장엔 햇빛이 비출 때마다 금가루가 반짝이듯, 눈이 부실 정도로 예쁘게 반짝거리고 있을 겁니다. 언제나 즐겁고 아

름다운 음악이 흐르고, 새들이 어딜 가든지 예쁜 목소리로 지저귀고 있을 겁니다.

거기는 또한 제가 아끼는 모든 사람들이 있겠지요. 제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 가족, 학교, 학원 친구들에서부터 여러 교회에서 만난 친구들까지, 모두가 그 곳에 함께 있으면서, 매일을 찬양함으로 행복하겠지요.

천국은 그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을 곳, 모두의 'Heaven'이니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천국에서 다 같이 부활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부활한다면

믿음을 통해 부활의 참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공신혁
(중등부 2학년)

부활은 곧 믿음으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부활의 참 뜻을 알지 못하고 부활로써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11:25-26)”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부활할 것이며,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부활한 몸은 영광스러울 것이며, 강하며, 영원히 사는 몸이 될 것입니다.

만약 제가 부활한다면 이는 곧 신실한 믿음의 성도로서 구원받은 것이며,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과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큰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매 주일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음”을 앵무새처럼 말하고 있는 저에게는 아직은 부활의 참 뜻 보다는 제가 부활했을 때 사랑하는 가족들도 부활해서 옆에서 같이 있게 되는 것인가가 더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우리 서울교회에서 더욱 큰 믿음을 키워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에 대한 더 큰 믿음을 통해 부활의 참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Resurrection Message

How will you rise from your grave?



Pastor Daniel Kim

For the past three years, the disciples of Jesus had witnessed the marvelous life, teaching, and ministry of their Master. Then suddenly, they witnessed the horrifying sight of their Lord being arrested, crucified, dead and buried. Now the disciples huddled together in an upper room and wondered what was to become of them. Their minds and hearts were filled with all kinds of thoughts and emotions . . . fear of persecution, guilt and shame over their desertion of Jesus, doubt and despair regarding their messianic hope, and a sense of abandonment and hopelessness. Basically, their dreams and expectations had died with Jesus.

I am sure that we can all identify with any one of these emotions: fear, shame, doubt, despair, and hopelessness. What, then, will restore your hope? What will revive your spirit? How will you rise from your grave? It is at moments like these that we find assurance in the resurrection presence and words of our Lord. Let us reflect on the text in John 20:19-22.

(1) His Assuring Presence: "Jesus came and stood among them and said, 'Peace be with you' "(v.19). Jesus knew the

solution to his disciples' sense of insecurity was the assurance of his presence. And thus his opening word was that of blessing? "Shalom" or "Peace be with you"? not rebuke for their cowardice or betrayal. He is saying: "I am here with you. I haven't rejected you. I want to comfort you and assure you."

(2) His Assuring Commission: "As the Father has sent me, I am sending you" (v.21). Despite their failure and shortcoming, the Lord entrusts his disciples with his works. He had exemplified to them: "as the Father has sent me." Now he delegates them: "I am sending you." Our Lord is indeed the "Lord of second chance." He is willing to recommit his trust to us. He is saying, "I believe in you. I want to invest myself in you again. I am going to use you more effectively."

(3) His Assisting Power: "He breathed on them and said, 'Receive the Holy Spirit' "(v.22). The breath of Jesus signifies the resurrection life in the Spirit. Jesus imparts to us the power of his Spirit. Not only does He commission us, but he equips and empowers us to do God's work. He is saying, "I will help you. I will empower you to accomplish all that I have intended for you to do."

May you be blessed by these assuring words and the accompanying presence of our Lord Jesus on this Resurrection Sunday! Shalom!

부활의시

부활의 소망

오영숙 권사 (12교구)

저 멀리 유대 땅, 죄인들의 함성
예수님의 피를 팔고 죄를 범한 자들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 까지도
시기하여 고발 하였도다.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오신 예수님
평화의 왕, 구원의 왕
빛으로 오신 예수님,
진리의 말씀도 순종치 않고
그들은 빌라도에게 넘겼노라.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거짓증거자들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채찍으로 때리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골고다로 향하신 주님,

아! 비통한 죽음
우리는 뼈 아프게 후회의 눈물을 흘리노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만왕의 왕
죽음에서 부활 하셨도다.

다시 사신 예수님!
잠자는 자의 열매 되셨도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구원,
우리를 죄악에서 새 생명으로 구원하셨도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의 소망 주심을
땅 끝까지 전하겠노라

Come, join us!
All are invited

Leadership Training Class

"Spiritual Leadership"

Christian Leadership : Jesus' Model
Prophetic Leadership : Theocentric Model
Pastoral Leadership : Relational Model
Servant Leadership : Incarnational Model
Missional Leadership : Visionary Model

Instructor : Pastor Daniel Kim
When : Every Sunday, 9:30 a.m. - 10:30 a.m.
Where : Room 104(1st F)

English Ministry

순결서약식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정아영 (고등부 1학년)



“아영아, 순결 서약식 이제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 고등부 시간에 나는 이 말을 듣고 놀랐다. 내가 삼남매중 막내여서 그런지 내가 아직 어린애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말을 듣고 내가 벌써 곧 있으면 어른이 된다는 상황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뭔가 기분이 어색하고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순결 서약식은 먼 미래에 하는 일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그 시간이 어느새 훌쩍 내 앞으로 빠르게 다가왔다. 갑자기 나는 내가 순결서약식을 꼭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 교회에 다니면 언젠가는 꼭 하게 되는 절차로만 생각하고 있다가 막상 나에게 다가오니 갑자기 내가 꼭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에 빠지게 된 것이었다. 내가 혼자 결론을 내리기 너무 어려워서 학교 친구들 몇 명에게 순결서약식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다.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은 순결서약식은 구시대적인 마인드인 것 같다고 꼭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나에게 말해주었다. 나는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순결서약식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하고 결심하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몇일 전, 나는 ‘순결서약식은 하나님 앞에서 순결을 약속드리고 세속적인 즐거움과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가지 않겠다는 다짐을 다지는 의

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순결서약식을 결심하게 되었다.

또한, 나는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시각으로 살아가지 않고 항상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나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앞으로도 이 결심을 끝까지 지키도록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특별찬양

임마누엘찬양대(대장:양춘경 장로)가 찬양예배시간에 부활절 감사찬양으로 “십자가 위의 일곱말씀 (Die Sieben Worte Jesu am Kreuz / Cesir Franck작곡)”을 찬양한다. 류충기집사의 지휘로 첫째 말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십시오”부터 일곱째 말씀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부탁하나이다”를 합창과 중창, 독창으로 찬양하며 오르가니스트 김여정 선생, 피아니스트 양경실 집사, 팀파니스트 윤중현 선생이 연주하고 신모란 집사 (Sop.), 이규철 선생(Ten.), 최 읍 선생(Ba.)이 솔로리스트를 담당한다.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3월31일(주)성김의교회 창립1주년 감사전도 집회 특강을 한다. 4월4일(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지도자 기도회에서 한국장로교 한교단다체제 로드맵(Roadmap)을 발표한다. 4월6일(토) 소망교회 신앙수련회 특강을 한다. 한국장로교 신학회 2회 학술발표회 개최설교를 한다.

■ 공연: 15교구 신모란 집사, 오페라 Farstaff,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4월 6일(토) 오후 7시

■ 주간식당봉사: 마리아전도회(3.31) 한나전도회(4.7)

■ 금주의 식사: (식사) 이경희 권사(박태규, 송희숙 집사) (성도님들의 기도에 감사드리며) (달걀) 최형열 집사 김찬진 권사 가정 (주님의 부활을 감사드리며)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항상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2. 순결서약식을 통하여 우리교회 다음세대들이 타락한 세상 속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꾼들로 세워지도록
3. 부서별 예배를 통해 다음세대들이 말씀으로 도전받고 부흥하여 한국교회에 복음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9교구 모임

9교구 모이세요!



원용규 집사 (9교구 부교구장)

부활과 생명의 계절. 봄이 다가왔습니다. 겨우내내 움추렸던 9교구 식구들이 4월 6일(토요일) 11시에 베델하우스에 모여 예배드리고, 떡을 나누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축제의 장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교구는 총 123세대로서, 교회를 중심으로 가까이는 성동구와 광진구, 동대문, 중랑구가 있고, 멀리는 남양주, 양평, 청평, 가평, 원주, 춘천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교구의 일이라면 모두 한결에 달려나와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전통이 되어진 사랑과 화목의 교구입니다.

특히 연로하심에도 불구하고, 매 주일마다 아침 일찍 멀리 원주에서 버스를 타시고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김태기 은퇴장로님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큰 귀감이 됩니다.

우리 교구는 서명철 지도목사님과 최양진 교구

장로님을 중심으로 똘똘뭉쳐, 가장 단합된 힘으로 교회와 교구와 이웃을 내 몸같이 돌보며, 전도에 힘쓰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큰 보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남녀노소가 마치 가족처럼 다양하게 모여서 세대의 간격을 느끼지 못하며 화목하게 어울릴 수 있는 것도 큰 자랑거리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시며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흐뭇한 표정으로 칭찬해 주시고 계시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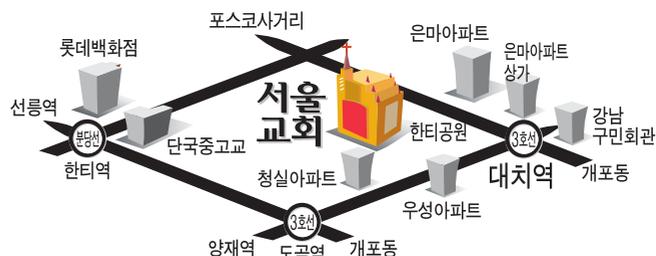
봄은 부활절을 시작으로 새생명들을 잉태하는 가장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우리 9교구 모든 가족들도 그리스도께서 죽은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이번 연합축제를 계기로 교구의 사랑을 더욱 굳건히 하고, 이웃사랑의 지경을 넓히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 것을 굳게 다짐해 봅니다.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본 당 II 층

■ 교회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